

“분양가 낮고 사통팔달... 기업환경도 최적”

순천 해룡산단 입주기업 모집 나섰다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산업용지)가 분양가를 대폭 낮춰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해룡일반산업단지는 일반 매립지 산업단지라 달리, 지반개량 등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어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

이에 낮은 분양가에 순천 도심지역과 해룡 부도심 신산업지대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과 폭넓은 교통망은 물론,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입주 최적의 여건을 갖추게 됐다.

◇분양가 대폭 낮춘 해룡산단=해룡산단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 100-3 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126만656㎡(38만평 상당) 규모의 산업단지다.

8월 시행사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룡산단 분양가를 기존 3.3㎡(1평)당 84만 9000원에서 3.3㎡당 7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에 나섰다. 무려 평당 10만원이나 낮은 셈이다.

특히 단단한 지반 위에 조성된 해룡산단은 주변 매립지 산업단지라 달리 지반개량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립으로 조성된 주변 산업단지는 잡화방지를 위한 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과 달리 견고한 원지반 위에 조성돼 3.3㎡당 20~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반이 견고한 탓에 정밀기계장치 업종 입주기업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도 강점 중 하나다.

㈜대우건설 장정식 소장은 “튼튼한 지반으로 공장을 신축해도 기초공사 비용이 적게 들고 공장 설립 후 지반개량과 유지보수비용이 매립지 산업단지보다 30% 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즉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4,300㎡(약1,300평)의 소규모

3.3㎡당 75만원...분양가 대폭 낮추고 입주 업종 확대

광양제철·여수산단 주변 지리적 장점에 교통망도 OK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것도 주변 산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룡산단만의 강점이다.

◇지리적 장점을 갖춘 최적의 기업환경=해룡산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 세계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53%를 생산하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이다.

광양제철과 현대제철, 현대스틸, GS칼텍스,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과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학의 연구기관 등 신소재 제조와 연구 기반시설도 구축돼 있어 산업용 원자재 공급이 원활한 것도 이점이다.

폭넓은 교통망도 한몫한다. 순천역과 여수공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세계적 물류허브 광양항은 18km로 20분 거리다. 울촌항도 5km로 지척이다. 게다가 산단입구 해룡나들목이 완공되는 오는 11월이면 5분 안에 호남고속국도와

남해고속국도, 순천~완주 고속국도와 직접 연결돼 수도권과 부산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다.

전세가와 임대료가 매매가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한 신규아파트 1만1000여 세대가 입주할 신대지구는 산단에서 5분 거리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9개의 국·도립공원, 실내체육관 등 교육·관광·문화·체육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순천시가 올해도 산업평화정책선언을 하면서 노사분쟁 없는 산업평화지역, 안정된 도시도 정착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8년 ‘뿌리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소성가공과 표면처리 등을 위해 광주나 장원을 오고 가야했던 고통도 해결될 전망이다.

◇입주가 8개 업종에서 13개로 확대, 타 업종 추가 가능=해룡산단에 입주할 업종은 애초 1차금속과 전자부품·기계장비·자동차 등 8개 업종이었으나, 지난 5월 화학·고무·플라스틱·비금속 광물·전기·전자·연구개발 등 5개 업종

이 추가됐다. 업종이 13개로 늘었다. 여수석유화학단지과 광양제철소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뿌리산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업종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관청 및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가능하도록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시행사 ㈜대우건설은 해룡산단에 60여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소재, 마그네슘과 관련된 첨단부품 제조기업을 포함한 제철, 석유화학단지와 연계된 기업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계장비와 정밀가공업체도 집중 공략 중으로, 뿌리산업 관련 기업 유치활동도 벌이고 있다.

◇토지 투자 가치도 커=해룡일반산업단지(산업용지)는 화학과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여수와 순천, 광양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구축됐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크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광양 간 이순신대교 개통과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기업들의 물류비 등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해룡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인근의 ‘명품단지’인 신대지구와 인접해 있어 토지 투자 수익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신대지구는 순천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다. 290만㎡ 부지에 조성된 이곳은 1만1000가구에 3만여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로 개발돼 최근 1년 새 3.3㎡당 100만원가량의 프리미엄(웃돈)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사무실(061-721-3463)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061-760-5541), 순천시 경제진흥과(061-749-574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6.89 (-4.22)	금리 (국고채 3년) 1.23% (0.00)
↑ 코스닥 702.44 (+1.54)	↓ 환율 (USD) 1135.50원 (-0.90)



한전, 몽골 진출 교두보 마련

신재생에너지·송전설비 개발 MOU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몽골 에너지 시장 진출에 발판을 놓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 기간 중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조환익 사장은 1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엔코볼드 남자브 몽골 에너지개발회사 뉴컴 사장, 미와 시게키 일본 소프트뱅크 전략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폭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한 국영 송전회사(NPTG)와 송전설비 개선 및 사업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몽골은 광산 자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바람 및 태양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 또한 농촌지역의 전력 보급률이 낮고 송배전 손실률이 높아 전력 서비스가 낙후되고, 전력망이 취약해 전제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한전의 경험과 기술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MOU는 향후 몽골 에너지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한전은 Newcom 및 Soft Bank와 이번

MOU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분야에서 공동사업개발 및 투자를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먼저 3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몽골 국영 송전회사인 NPTG와 초고압 전력분야에서 몽골 전력계통 및 중장기 설비투자계획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한전의 전력설비 운영 노하우 및 전력 신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개발을 추진기로 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몽골은 우수한 광물자원 및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전력량 확충 등 전력플랜트 사업 환경이 성숙될 경우 플랜트 건설, CDM 사업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보유하고 있다”며 “금번 협력을 통해 Win-Win 초석을 마련하면 향후 몽골내 신재생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송배전사업 진출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남통계청, 문권순 신임 청장 취임

호남지방통계청은 문권순(56·사진) 제5대 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임 문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과 호남·제주권의 특성에 맞는 지역통계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호남통계청이 지역통계 허브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조사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통계청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에서 통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2년 통계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통계분석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전남 6월 무역수지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광주·전남지역의 6월 중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15억5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7억8400만달러, 수입은 22.6% 감소한 22억3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5억5300만달러 흑

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발생한 무역

수지 흑자로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기준으로는 수입이 25.9% 감소했으나 수출은 11.1%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는 84억4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iwest.co.kr

http://www.facebook.com/kowepo
일한 정보기 가득한 한국서부발전의 공식 페이스북 많이 이 방문해주세요.

에너지신산업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LED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신산업!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섭니다.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 한국서부발전이 태양광, 풍력, 소수력, ESS, IGCC 등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산업으로 깨끗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안

평택

서산

군산

With Pride

한국서부발전(주)